

# 유통업계 '필환경 시대'

<必>

### 대형마트 3사, 다음달부터 자율 포장대 노끈·테이프 철수 사이다 페트병 35년만에 무색으로...주류업계도 동참

환경을 필수로 생각하는 '필(必)환경 마케팅'이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유통가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 포장대에서 노끈과 테이프를 갖춰 놓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종이상자를 비치하되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비닐 테이프를 종이 소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환경부에 따

르면 대형마트 3개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를 기준으로 연간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658t에 달한다.

앞서 대형마트 4사는 지난 8월 자율적 협약을 맺고 자율 포장대를 아예 없애기로 했지만 불편함을 토로하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면서 종이 상자 비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 4곳은 '1+1' 포장 등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1회용 비닐 소포백을 대신해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방침이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유통가 친환경 마케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산점은 지난 달부터 '우유팩

분리수거함'을 지상 3층에 운영하고 있다. 마트 이용객이 우유팩 등 종이용기를 사들 인터넷(IoT) 센서가 있는 수거함에 분리수거하면, 용기 10장당 200ml 우유 1개를 받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에 적립된 포인트로 '도시 숲'을 조성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피자를 전달하기 위한 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이마트 광산점과 광산구 등은 내년 1월21일까지 종이팩 777개 기부하면 피자 20판을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할 방침이다. 23일 기준으로 기부된 종이팩은 525개에 달한다.

주류·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을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바꾸는 추세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 색깔을 35년 만에 초록색에서 투명색으로 바꿨고 점차적으로 모든 제품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롯데주류 소

주 '처음처럼'과 제주소주 '푸른밤' 등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개정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페트병 제품을 무색으로 변경하거나 포장재 '최우수등급'을 충족하는 페트 용기로 선보였다. 관련 법에 따라 25일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포장재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한다. 목포에 본사를 둔 보해양조는 3년여 전부터 투명한 '잎새주' 페트병 제품을 유지해왔다.

새 제도의 시행에 압박을 주요 음료·주류업계는 포장재를 바꾸며 대응에 들어갔지만 '색깔 있는 병'의 사용이 불가피한 와인·위스키 등 일부 수입 주류 업계는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90.08 (-13.63) ↓ 금리(국고채 3년) 1.37 (-0.01)
- ↓ 코스닥 638.91 (-8.71) ↓ 환율(USD) 1163.90 (-0.40)

### 해양에너지 임직원·자원봉사자, 홀몸 어르신에 '일일산타'



(주)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최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산타'로 지역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 안마 봉사봉사를 펼치고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만민운동기금'을 전달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 “배당 받으려면 내일까지 주식 사야”

### 예탁결제원 광주지원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24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매매분까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또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명의변경)나 전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 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난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미 전자 등록 대상 종목의 실물 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다. 이 경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 등록만 가능하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명세, 실물 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 통지서·배당금지금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

## 느린 우체통에 추억을 부치세요

### 유·스퀘어, 다음달 19일까지 편지 1년 뒤 받아보는 이벤트

유·스퀘어가 오늘 부친 편지를 1년 뒤 받아보는 특별한 추억 선물 이벤트를 마련했다.

유·스퀘어는 내년 1월19일까지 1층 영풍문고 앞 실내공간에 시민의 마음을 전하는 느린 우체통 '해피 유·레터(Happy U·Letter)'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Happy U·Letter'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연인에게 편지를 써 부치면 1년 후 해당 주소지로 발송해주는 무료 이벤트다.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따뜻한 손편지에 담아 전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느린 우체통 이벤트 공간에는 손 편지를

맡겨 쓸 수 있도록 무료 편지와 불펜, 스티커 등이 놓여있다.

유·스퀘어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에 'Happy U·Letter'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모인 총 1400여장의 편지는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지난해 'Happy U·Letter'를 통해 편지를 쓰고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기도 공모한다. 수기는 자유양식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 한 후 분량 제한 없이 담당자 이메일(u.culture@naver.com)로 내년 1월20일까지 보내면 된다.

우수 사연으로 선정되면 CGV영화관람권을 비롯해 다양한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추억과 여유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1년 뒤 편지를 받는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 광주·전남 중·장년 3명중 1명 年 1천만원 못 번다

### 취업자 비중 광주 64.6% 전국 세번째...전남 58.6% 최하위

### 2018 중·장년층 행정통계

지난해 만 40~64세 중·장년 취업자 비중은 광주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전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 취업자 수는 광주 36만5000명·전남 39만7000명 등 전국 124만7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장년(광주 56만5000명·전남 67만8000명) 가운데 일자리를 얻은 비중을 보면 광주 64.6%·전남 58.6%로 전년보다 각각 3.8%, 4% 증가했다.

17개 시·도별로 중·장년 취업자 비중을 따져보면 세종시가 68.9%로 가장 높고 경기(65.3%), 광주(64.6%), 대전(64.4%) 순으로 높았다. 전남은 취업자 비중이 1.5%포인트(1만5000명) 오르는 것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중·장년층 인구는 전년에 비해 3000명 늘어난 56만5000명이었고, 전남은 5000명 증가한 67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전남(38.8%), 광주(38.7%)로 나란히 12위, 13위를 차지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중·장년 인구가 3만5110명으로, 특·광역시 75개구 중 중·장년층 인구가 2년 연속 하위 7위를 기록했다. 도 단위의 77개 군 가운데 무안군 중·장년 인구는 2만7902명으로, 상위 8위를 나타냈고 구례군(9496명)은 지난해 하위

1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지역 중·장년 가운데 미취업자 비중은 광주 35.4%(20만명)·전남 41.4%(28만1000명)이었다. 전국 미취업자 비중 평균은 37.1%로 나타났다. 광주 3만6000명과 전남 4만4000명의 중·장년은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

중·장년 평균 소득은 광주 3276만원·전남 3120만원으로 각각 6위와 13위를 차지했다.

도 지역 모두 평균(3441만원)을 밑돌았으며, 3명 중 1명 꼴(광주 29.6%·전남 32%)로는 1년에 1000만원 미만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제주항공, 무안~광주 1시간 매일 운항

### 내년 3월까지 화요일 제외 무안서 오전 8시30분 출발

무안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광 노선이 24일 취항했다.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무안~광주 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운항일정은 무안에서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은 오전 8시30분(이하 현지시각) 출발해 광에는 오후 1시40분 도착하고, 광에서는 오후 4시15분 출발해 무안에 저녁 7시5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화요일에는 무안에서 오전 7시30분에 출발해 오후 12시40분 도착하고 다시 광에서 오후 3시40분 출발해 오후

7시20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짐이 많은 가족 여행객들은 '페이패밀리' 운임 중 '플라이백 플러스' 운임을 선택하면 수하물 2개를 맡길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여행일정을 바꿀 수 있다.

제주항공은 취항 기념 행사를 갖고 오는 31일부터 2020년 1월8일까지 광 현지 다양한 할인혜택과 경품을 제공하는 '삼광'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읍의 자랑**  
정읍은 지금 쌍화차의 계절!  
확 달라진 쌍화차거리,  
그리고 정읍만의 특별한 차 한잔!

맛과 향, 건강까지~  
30년 세월 녹아든  
전설의 쌍화차 거리!  
정읍의 자랑 숙지황과  
생강과 대추 등 스물 여 가지 약재를  
사랑과 정성으로 달여  
밤과 은행, 잣 등 고명을 얹으면  
정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잔의 보약,  
바로 정읍의 쌍화차입니다.

# 쌍화차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깊은 맛의 쌍화차!  
쌍화차 거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차 한 잔에 담긴 사랑과 행복~  
따뜻한 정과 감동은 텀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